

여성 인권침해에 공동대처

91. 12. 27

아시아 11개국 모여 〈아시아여성인권협의회〉 결성

여성인권 침해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아시아지역 여성들의 모임이 결성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아시아 여성인권협의회는 가부장제 문화전통이 강한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여성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결성됐다.

태국,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11개국 여성 3백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아시아 여성인권협의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국,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등 15개 여성단체 대표가 참가하고 있다.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성폭력, 인신매매, 구타, 매춘, 기생관광 등에 관한 각국



▲아시아여성인권협의회 총회 장면. 이 모임은 성폭력, 인신매매 등 여성인권 침해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결성됐다.

의 실태를 발표하면서 아시아 여성들의 성적유린은 명백한 여성인권 침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각 국가별로 여성보호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 여성인권협의회는 각국의 여성문제를 국제적 차원

에서 함께 해결하기 위해 유엔 인권위에 여성인권문제를 특별히 다루는 여성담당자를 진출시키자는 다짐도 했다.

한편 다음 총회는 93년 인도 뱅갈로에서 개최된다.

91. 12. 18

여성 인신매매·성폭력등 근절 아시아 15개국 연대활동 결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15개국 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성폭력 등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지역망을 구성하고 연대활동에 나선다. 지난 9~17일 서울에서 '인신매매'를 주제로 창립총회를 가진 아시아여성인권협의회는 17일 이렇게 결의했다.

협의회는 또 일제치하 한국 여성들의 수난사를 상징하는 정신대 문제에 관심을 표시하고 "일본 정부는 2차대전중 한국여성 20만여명을 중군위안부로 강제 연행한 데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

와 유족에게 배상할 것"을 촉구했다.

넬리아 산초(필리핀 여성운동가) 서울총회 준비위원장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서울총회에서 2년마다 아시아여성인권협의회 총회를 열고, 임원단 없이 각국별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히고 "각국 대표로 '아시아지역 여성망'을 형성해 한 나라에서 여성문제가 생기면 이를 아시아 각국에 알려 연대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